

2008년 11월 12일 수 말씀

나중에 목회를 잘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사명부터 잘 해야 합니다. 목회는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배우고 성경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말씀도 잘 듣고 실천하고 해야 합니다. 텔런트들도 연습을 수 백 번, 수 천 번씩 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에 있을 때 수 천 번씩 연습을 했기에 그동안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 다. 처음에는 사람 앞에 서면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았습니 다. 그러나 많은 연습을 통해 나아졌습니 다. 그러니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1등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노력을 조금 하는데 1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배우면 자꾸 써먹어야 합니다. 써먹으면서 배우고 또 써먹으면서 배우고 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 배운 후에 써먹으려면 늙어서 못합니다.

중국에 절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중국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길러서 잡아먹는 나라입니다. 고기를 기르면 어느 날 없어집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에 정착 하는게 아니고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캠퍼스와 중고등부의 젊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어른들이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주일 학교를 70%이상 잡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일 학교는 잡고 하는데 청년들은 끊겼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청년을 잡았습니 다. 어떻게 잡았나 하면은 청년들을 직접 잡기도 했지만 중고등부를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고등부를 계속 관리하면서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중고등부 때 안하면 신앙을 넣어주기가 힘듭니다. 크면 바빠지지 않습니까? 크면 바빠집니다. 어릴 때는 바쁜 것이 없으니까 신앙을 이때 넣어주면 쉽습니 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는 대로 받아들입니 다.

교인이 100명 넘는 곳은 금방 200명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리입니다. 이것을 잘 해야 합니다.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 할 때 마음을 크게 먹어야 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때 10명이 넘으니 너무 많다고 생각해 쪼개서 했습니 다. 나중에 성장하니까 생각이 커지고 크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잡아서 나

갈 거라고 했더니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큰 마음을 가져야 크게 됩니다. 100명 200명 그 인원이 지고 힘들어하며 늙지 마십시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대답하고 과감하게 끌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치어와 모델전도에 집중해서 전도하니까 인원이 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어떤 택한자를 불러들일까요?’ 했더니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 전파하신 것입니다. 특수한 사람만 하면 복음전하는 폭이 확 좁아집니다. 젊은 사람들 숫자 보십시오.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어른과 아이 빼면 젊은 사람은 진짜 적습니 다. 젊은 사람만 해도 이렇게 숫자가 없는데 거기서 골라서 하면 전도 별로 못합니다. 나도 그전에 전도하러 다닐 때 사람 골라서 전도하지 않았습니 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만 명씩 전도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 많이 하고서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와서 한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계속 산에서 수도생활 하면서 나와서 전도하다가 산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 다. 그때 전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너무 뭘 잘 모릅니다. 너무 모르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습니 다. 너무 몰라서 돈도 뜯기고 합니다. 회원들이 100%모르니까 100% 일 저지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알고서 해야 합니다. 다 안다고 해도 앞날을 쳐다보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앙생활 중심해서 한다고 하지만 영계 가서 보면 전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책 저런 책 다시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동안 가르친 것이 빛나게 다시 보라고 한 것입니다.

너무 모르고 일을 합니다. 돈을 다 빼이고 너무 죄송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8천 만원 1억씩 돈을 뺐서 투자했다가 다 날렸습니 다. 너무 안타깝습니 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한 들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잘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컸으니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